

農村工業의 規模, 性格 및 成長分析

李 桐 翊

責任研究員, 所得開發室

- I. 머리말
- II. 大都市의 工業集中과 農村工業開發
- III. 農村工業의 性格
- IV. 農村工業의 成長(1970~83) 分析
- V. 맷는 말

I. 머리말

1960~70년대의 經濟的 優裕성 위주의 大都市 偏向의 경제사회개발은 인구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행정 등의 전 분야에 걸쳐서 대도시 집중을 가속시켜 왔으며, 이는 都市問題 및 農村問題의 累積的 惡循環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제기하고 있다.¹ 따라서 정부에서는 農漁村地域에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農外所得을 증대시킴으로써 農촌인구를 현지에 정착시키고 產業間 및 地域間 均衡開發을 도모할 목적으로 1984년부터 農工地區開發을 중심으로 한 農村工業 육성시책²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農촌공업에 관한 이와 같은 정책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農촌공업개발이 부업단지, 새마을공장 등 개별기업이나 독립된 사업으로 파악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 전체 製造業部門에서 차지하는 農촌공업의 규모는 얼마나 되며 이들은 또한 도시지역의 공업들과 비교해서 어떠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추세로 성장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農村工業의 概念 자체가 아직까지 일반론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과 함께 기존의 제조업에 관한 통계자료시스템이 市郡單位統計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

우리 나라의 제조업부문에 관한 공식자료는 經濟企劃院에서 매년 조사, 발표하는 「鑛工業セン서스조사 결과보고」에서 구할 수 있는데, 1982년까지는 市道別資料만 발표함으로써 農촌공업의 구분기준이 되는 市郡地域의 자료이용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였다.³

본 연구는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의 협조를

¹ 崔洋夫, 李桐弼, “農漁村所得源開發의 政策課題” 「農漁村所得源開發方向」, pp. 40~50, 1984.

² 農村工業 육성시책은 1968년 「農家副業園地」 育成과 1973년에 착수된 「새마을工場建設」 사업 등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나 본격적인 사업의 추진은 1983년 12월 「農漁村所

得源開發促進法」이 제정 공포되면서 비로소 立地論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³ 鑛工業セン서스는當時 從業員 5人 이상 鑛工業體에 대해

얻어 조사통계국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1970~83년의 14년 동안 鎌工業센서스 原資料를 市郡別로 재분류하여 총량적인 농촌공업의 규모와 성장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그동안 농촌공업의 概念과 意義 및 새마을工場이나 副業團地 등에 대한 事例研究는 계속되어 왔으나 전국적인 자료를 이용한 농촌공업의 총량적인 규모와 성장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농촌공업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또한 현실적으로 전체 공업부문 중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도시공업에 비해서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다만 분석에 활용한 鎌工業센서스 자료가 기본적으로當時從業員 5인 이상의 사업체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零細製造業體들이 제외됨으로써 실제 농촌공업의 규모에 비해 다소 낮게 평가되었을 것이란 점과 그동안의 行政區域改編으로 인한 邑地域의 市昇格 등으로 인하여 동일한 기준 위에서 농촌공업의 규모와 성장을 파악하는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둔다.

Ⅱ. 大都市의 工業集中과 農村工業 開發

우리 나라에 있어서 근대적인 공업개발은 1876년 「江華島修好條約」의 체결과 함께 시작되어 日帝殖民地 시대에 그 기반을 형성하였다. 이

매년 全數調査를 하는 것으로 1965~66년에는 韓銀과 生產性本部 등에서 조사되어오다가 1967년부터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에서 담당하고 있다. 매년 발간되는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市道別자료만 발표하다가 1982년부터 부분적으로 업체수, 종업원, 생산액 등 市郡別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당시 工業立地는 대륙침략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한 日帝의 “南農北工政策”에 많은 영향을 받아 대부분의 공업개발이 북한지역에 이루어지고⁴ 南韓에는 인천, 대구등지에 섬유, 잡화류를 중심으로 한 일부 輕工業이 입지하였다. 그후 남한의 工業은 6·25동란으로 인한 대량파괴와 계속된 美軍政의 生產政策 미비로 말미암아 第1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수립된 1962년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工業化政策이 추진되었다.

특히 工業立地政策과 관련해서는 1964년 대도시의 과도성장을 막기 위해 “서울에 新工業開發을 억제”하는 내용의 결정이 있었으나 같은 해 「輸出產業 工業團地造成法」(法律第1656號)을 제정하고 구로, 인천 등지에 수출산업의 육성을 위한 工業團地를 조성함으로써 사실상 최초의 입지정책인 서울의 공업개발 억제결정은 유명무실화하고 말았다. 그후 1970년 “工業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여 지방간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雇傭機會의 증대를 기함으로써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地方工業開發法」(法律第2187號)이 제정, 공포되고 1973년 춘천, 원주, 청주, 대전, 광주, 목포, 전주, 이리, 구미등지에 工業開發獎勵地區를 지정한 것이 工業의 地方分散을 위한 실질적인 工業立地政策의 효시가 된다.

그러나 국민경제의 여건상 빈약한 資源과 낮은 技術水準 및 부족한 資本으로 단기간 내에 高度成長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加工貿易形態의 輸出主導型工業開發에 역점을 둘 수 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1970년의 「輸出自由地域設置法(法律第2180號)」 및 1973년의 「產業基地開發促進法(法律第6257號)」 등을 통해 工業立地條件이 유리

⁴ 韓昌浩, “日帝下의 韓國鎌工業에 관한 研究,” 「日帝의 經濟侵奪史」, 民衆書館, 1971.

表 1 工業團地造成形態 및 他地域別工業團地造成實態

단위 : 千m²

| 造成形態 | 造成根據 | 事業期間 | 全國 | | 農村地域* | |
|------------|------------------|--------|-----|---------|----------|--------------|
| | | | 團地數 | 造成面積 | 團地數 | 造成面積 |
| 產業基地 | 產業基地開發促進法 第5條 | 1973~現 | 14 | 76,812 | 7(50.5) | 13,896(18.1) |
| 地方工業開發獎勵地區 | 地方工業開發法 | 1970~現 | 25 | 36,775 | 8(32.0) | 6,301(17.1) |
| 工業地域** | 都市計劃法 | 1965~現 | 20 | 18,725 | 3(15.0) | 982(5.2) |
| 中小企業示範團地 | 工業配置法 | 1977~現 | 9 | 1,019 | 3(33.3) | 289(28.4) |
| 輸出自由地域 | 輸出自由地域設置法 | 1970~現 | 2 | 880 | — | — |
| 計 | 7種 | — | 70 | 134,211 | 21(30.0) | 21,468(16.0) |

* 農村地域은 行政區域상 郡地域임.

** 工業地域에는 韓國輸出產業工團과 石油化學工團 등 2개 團地가 포함됨.

資料：商工部, 「工團現況」, 1986.

한 대도시와 일부 거점지역의 공업개발에 중점을 두게 됨에 따라 공업의 균형개발을 위한 立地政策은 경제개발정책의主流에서 밀려나 임시방편적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表 1>에 의하면 그동안 조성된 70개 工業團地 134,211千m² 중 21개 團地 21,468千m²(16.0%)만이 일부 농촌지역에 立地하고, 그 대부분이 반전시설등을 위한 特殊產業基地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工業立地政策의 흐름을 반영해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대도시나 일부 거점지역위주의 輸出產業 및 重化學工業 育成을 基調로 한 工業化政策을 통해 그동안 팔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나 한편으로는 도시지역의 과밀화 현상과 농촌의 人口流出 등 지역간의 심한 不均衡成長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1977년 「工業配置法(法律第3069號)」을 제정하고 “공업을 합리적으로 配置하여 적정한 工場立地를 조성하고 공장의 再配置를 촉진함으로써 과도한 공업의 集中을 방지하여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발전과 國民福祉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工業誘致地域을 설정하고 이를 지역에 대도시의 用途地域違反業體들을 재배치할 계획으로 있으나 아직 그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1984년 인구규모에 의한 地域別 鎳工業開發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광공업사업체 43,428社 중 53.2%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입지함으로써 行政區域상 이를 포함한 市級地域에는 75.2%(32,657社), 기타 郡級地域에는 24.8%(10,771社)의 업체들이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간의 극심한 불균형개발상태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종업원수, 생산액 및 工業用地의 지역별 배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市級地域이 각기 종업원수의 79.5%(1933千名), 생산액의 80.8%(58,420億원) 및 工業用地의 68.1%(173,164千m²)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공업개발의 차이는 <表 2> 및 <그림 1>의 鎳工業開發集積度에 의해 명백히 표현될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市級地域이 郡級地域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즉 인구 1,000명당 광공업개발실태의 경우 市地域에서 업체수 1.3社, 종업원 74.3명 및 생산액이 2,245.9百만원인데 비해 郡地域에서는 업체수 0.8社, 종업원 34.7명 및 생산액 967.8百만원으로 市地域의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당해 지역의 행정구역 면적 1km²당 광공업개발 실태는 市地域이 업체수 4.9社, 종업원수 292.6명 및 생산액 8,844

表 2 地域別 鐵工業開發 集積度 比較, 1984

| 行政區域 | 區 分 人口規模 | 人 口 1,000名 當 | | | 面 積 1 km ² 當 | | | |
|---------|-------------|--------------|----------|---------------|-------------------------|-----------|--------------|--------------------------|
| | | 事業體數 | 從業員數 | 生 產 額 | 事業體數 | 從業員數 | 生 產 額 | 工 業 用 地 |
| 市 | 100만이상 | (社) 1.4 | (名) 71.0 | (百만원) 1,563.8 | (社) 13.6 | (名) 682.6 | (百만원) 15,033 | (m ²) 12,840 |
| | 50~100 | 0.6 | 65.4 | 4,113.0 | 2.4 | 245.4 | 15,429 | 52,793 |
| | 20~50 | 1.3 | 95.9 | 3,254.5 | 4.9 | 373.8 | 12,690 | 38,929 |
| | 10~20 | 0.8 | 76.9 | 2,414.3 | 1.0 | 99.2 | 3,113 | 16,692 |
| | 5~10 | 1.2 | 65.4 | 4,750.9 | 1.1 | 58.2 | 4,231 | 11,468 |
| | 市部平均 | 1.3 | 74.3 | 2,245.9 | 4.9 | 292.6 | 8,844 | 26,213 |
| 郡 | 15만이상 | 0.8 | 42.4 | 1,117.3 | 0.2 | 10.6 | 279 | 2,025 |
| | 10~15 | 0.6 | 19.6 | 501.0 | 0.1 | 4.6 | 101 | 689 |
| | 5~10 | 0.9 | 47.6 | 1,429.0 | 0.1 | 5.4 | 163 | 768 |
| | 5만미만 | 0.5 | 7.6 | 55.7 | 0.0 | 0.4 | 3 | 52 |
| | 郡部平均 | 0.8 | 34.7 | 967.8 | 0.1 | 5.4 | 150 | 867 |
| 全 國 平 均 | | 1.1 | 59.9 | 1,781.7 | 0.4 | 24.5 | 729 | 2,565 |

百만원, 工業用地 26,213m²인데 비해 郡地域에서는 업체수 0.1社, 종업원수 5.4명 생산액 150 百만원 및 工業用地 867m²로 도시지역, 특히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지역의 工業集積現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도시나 일부 거점지역의 工業集積은 다시 集積利益을 유발함으로써 결국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서울, 인천 성남등을 중심으로 한 首都圈地域 및 포항, 부산, 울산, 창원, 여천을 연결하는 東南海岸工業地帶, 대구, 구미 공업지대 및 영월, 태백, 정선, 문경 등을 연결하는 鐵山地帶 등의 鐵工業벨트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공업벨트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수출공업 및 重化學工業育成施策에 의해 정책적으로 외부에서 이식된 공업에 의해 주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농촌지역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는 자생적인 공업들과는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상에서 살펴본 급격한 工業化過程에서 파생된 일부 거점지역의 工業集積現象 가운데서 농촌공업은 어떠한 양상을 띠고 진행되어 왔는가? 이 점에 있어서는 먼저 農村工業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농촌공업은 農業關聯工業 또는 農村市場依存的인 공업으로 파악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농촌공업에 대한 개념규정은 지나치게 規範的이고 非現實的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 農村工業開發 그 자체를 제약하는 개념틀이라는 점에서 최근에는 농촌공업을 농촌지역이라 부를 수 있는 空間的範域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製造活動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범위를 확장⁵하고 있다. 이와 같이 地域을 기준으로 한 농촌공업의 구분은 傳統的인 개념에 비해 훨씬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이 될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대부분 확장된 개념을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農村工業을 단순히 “농촌지역에 위치하는 일체의 製造業體”로 규정할 때 농촌공업의 규모(Share)는 결국 농촌지역의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農村地域은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法律第3689號)」에 의해 郡 및 인구 10만 이하의 市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

⁵ 崔洋夫, 金衡模, “農村工業의 概念과 農村工業開發의 意味,” 「農村經濟」 제 3 권, 제 1 호, 1980, pp. 34—39.

그림 1 人口 1,000名當 鎌工業從業員數의 分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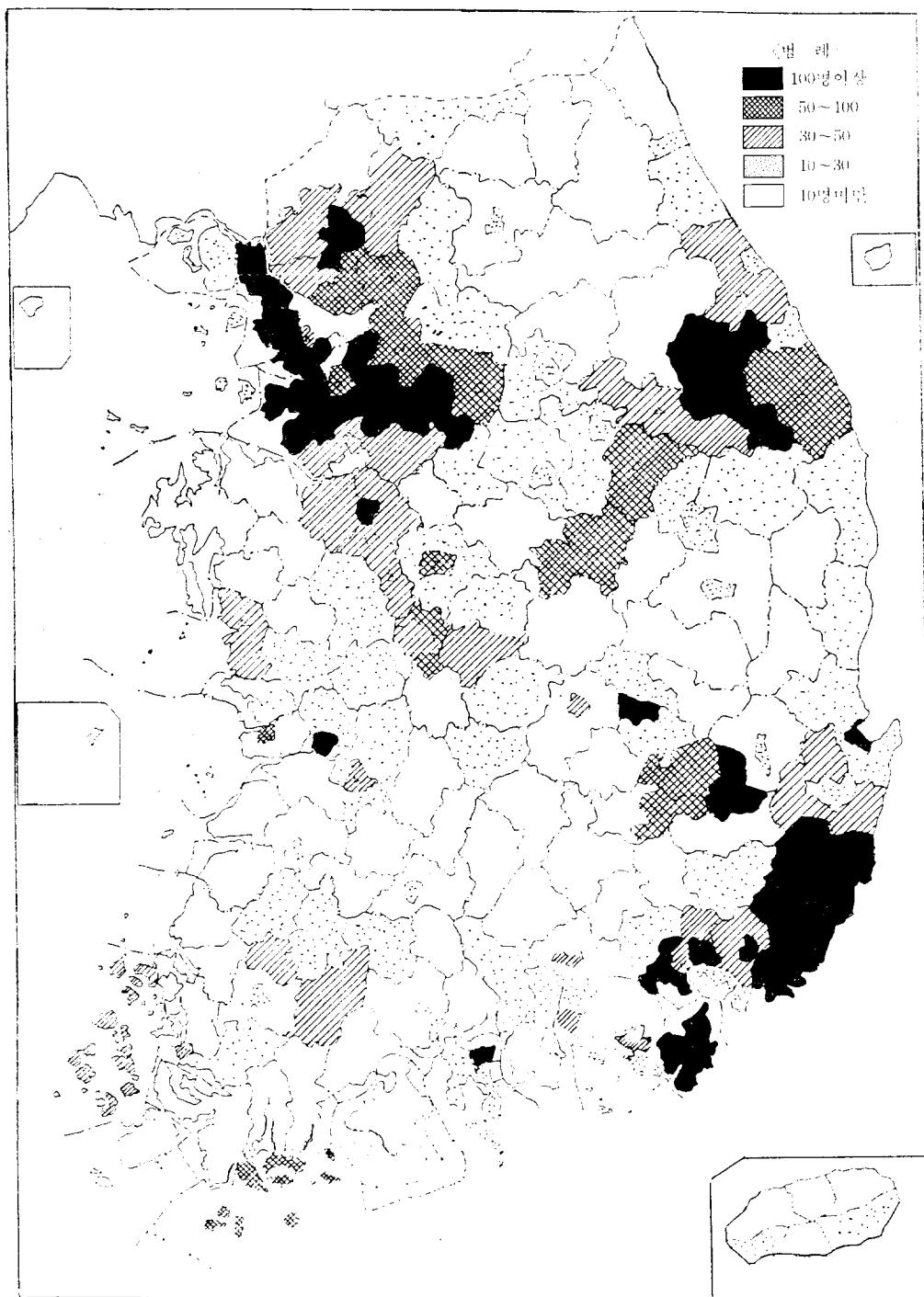


表 3 農村地域의 區分에 따른 農村工業의 規模, 1984

단위: 社, 名

| 農村地域範圍 | 行政區域상의 對象地域 | 製造業體數 | | | 從業員數 | | |
|-----------|-----------------|------------------|------------------|--------|---------------------|-------------------|-----------|
| | | 都市工業 | 農村工業 | 計 | 都市工業 | 農村工業 | 計 |
| 農村地域(I) | 人口 10만이하의 市 및 郡 | 29,747 (71.6) | 11,802 (28.4) | 41,549 | 1,792,427 (76.5) | 551,166 (23.5) | 2,343,593 |
| 農村地域(II) | 郡(邑)包含: 邑 및 面地域 | 30,837 (74.2) | 10,712 (25.8) | 41,549 | 1,846,855 (78.8) | 496,738 (21.2) | 2,343,593 |
| 農村地域(III) | 郡(邑)除外: 面地域 | 34,181 (82.3) | 7,368 (17.7) | 41,549 | 2,034,746 (86.8) | 308,847 (13.2) | 2,343,593 |

資料: 經濟企劃院, 「礦工業센서스조사결과보고」, 1985.

內務部, 「한국도시연감」, 1985.

용목적이나 機關, 자료의 이용가능성 등에 따라 郡地域 또는 邑을 제외한 郡地域 등으로 각기 달리 적용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이용편의상 농촌지역을 郡地域으로 한정하였으나 여기서는 농촌공업의 규모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세가지 농촌지역의 범위를 각기 적용시켜 보았다. <表 3>에 의하면 製造業部門 사업체수의 경우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의 농촌지역(I)을 적용할 경우 전체 사업체의 28.4% (11,802社), 일반적으로 行政의 편의상 흔히 사용하고 있는 郡(II)을 적용할 경우 25.8% (10,712社), 内務部 도시연감에서 사용하고 있는 邑을 제외한 郡(III)을 적용할 경우 17.7% (7,368社)가 農村工業에 해당하며 종업원수의 경우 I에서는 23.5% (551,166名), II에서는 21.2% (496,738名), III에서는 13.2% (308,847名)가 각기 농촌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의 규모로 파악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 그동안의 대도시 및 일부 거점지역 위주의 공업개발은 대도시지역의 과도한 工業集積과 같은 지역간의 심한 공업개발 격차를 초래하였는데 1984년 현재 전체 제조업의 70~80%가 도시지역에 입지하며 나머지 20~30%가 농촌공업으로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별 공업개발의 격차는 도시의 과밀화현상과 함께 농촌인구의 유출에 의한 농업노

동력 부족과 労賃上昇의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農外就業機會를 한정함으로써 농촌경제 구조를 농업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굴레로 작용⁶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공업개발을 통한 농촌의 고용기회 창출이 매우 중요한 政策手段이 될 수 있다.

III. 農村工業의 性格

地域을 기준으로 農村工業과 都市工業을 구분할 경우 농촌공업은 단순히 지역에 따른 工業開發隔差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인가? 만약 이를 공업간에 성격상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또한 이와 같은 차이는 어떤 이유에서 연유하는 것인가? 이 章에서는 業種別 資料이용이 가능한 1983년 矿工業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농촌 및 도시공업을 상호비교함으로써 농촌공업의 성격상 특수성을 규명해 보았다. 1983년 현재 우리 나라의 總製造業體數는 39,243社로 이 중 30,568업체가 市地域에, 나머지 8,675업체가 郡地域에 입지하고 있으며 本分析에서는 郡地域의 제조업체를 농촌공업으로 한정하였다.

⁶ 農村工業의 파급효과는 崔洋夫外, 「農外所得增大에 관한研究」, pp. 99-109 (1978) 참조.

表 4 業種別 製造業體의 立地商係數, 1983

| | 음식료품 | 설유, 의복 및 가죽신상 | 나무 나무제품 | 종이 제품, 인쇄 | 화학, 석유 프라스틱제품 | 비금속광물 | 제1차금속 | 조립금속 기계및장비 | 기재 타업 |
|--------|------|------------------|------------|--------------|------------------|-------|-------|---------------|----------|
| 都市地域 | 0.55 | 1.12 | 0.96 | 1.12 | 0.97 | 0.65 | 1.07 | 1.15 | 1.11 |
| 大都市* | 0.33 | 1.28 | 0.86 | 1.22 | 0.98 | 0.44 | 1.07 | 1.15 | 1.14 |
| 기타市 | 1.14 | 0.74 | 1.17 | 0.85 | 0.97 | 1.21 | 1.04 | 1.15 | 1.11 |
| 農村地域** | 2.57 | 0.61 | 1.15 | 0.58 | 1.09 | 2.18 | 0.78 | 0.49 | 0.52 |

* 인구 100만 이상의 特別 및 直轄市

**行政區域상 郡地域

1. 業種上의 特性

企業이 영위하는 사업의 業種은 당해 기업의 성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즉最大의 利潤을 추구하는 기업 경영자의 입장에서 어떤 사업을 취수할 때, 하고자 하는 업종에 가장 유리한 最適立地를 선택하기 때문에 農村工業에 대한 업종상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곧 농촌지역의 工業立地條件와 관련하여 어떤 業種이 比較有利性을 가지면서 존립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 준다. 다만 최근 농촌지역에 경제적으로 도입된 수출지향의 섬유, 전자등 勞動集約的產業과 석유화학, 제1차금속 등 重化學工業의 경우 상당수가 원료 및 제품시장에 있어서 해외시장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농촌공업과는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업종들이 농촌지역에 混在함으로써 농촌공업의 성격을 복잡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韓國標準產業分類의 中分類 方式에 의해 우리 나라의 업종별 제조업체의 실태를 보면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26.1%), 조립금속, 기계 및 장비제조업(24.1%)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 음식료품(11.4%), 화학, 석유, 플라스틱제품(9.8%). 종이 및 종이제품, 인쇄출판업(7.8%)등이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도시 지역의 경우 섬유의복(29.1%)과 조립금속(27.6%)

등 労動集約的 輸出產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비해 농촌지역에서는 음식료품(29.3%), 비금속광물제조업(15.7%) 등 農村原料指向의인 업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역 간의 業種別 特化程度는 다음의 立地商 (LQ) 계산에 의해 더욱 명백히 파악 될 수 있다. ①式에서 立地商係數가 1 이상이면 ($LQ > 1$)이 업종은 당해 지역에서 특화된 산업으로 지역 밖으로 지출하는 基盤產業 (Base

단, E : 전국의 總事業體數

E_i : 전국의 i 菜種의 事業體數

E_z : z 지역의 總事業體數

E_{iz} : z 지역의 i 業種의 事業體數

Industry)이 되며, 1이면 ($LQ=1$), 전국의 평균수준, 1 이하이면 ($LQ<1$) 전국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개발되어 있다는⁷ 사실을 의미하는 데 1983년 지역별 제조업체의 立地商關係는 〈表 4〉와 같다.

즉 도시지역의 경우 조립금속(1.15), 섬유의
복(1.12), 종이 및 인쇄출판(1.12), 기타(1.11),
제 1차금속(1.07) 등 労動集約的產業이, 농촌지
역에서는 음식료품(2.57), 비금속광물(2.18),
나무제품(1.15), 화학제품(1.09) 등 原料 및 立

⁷ 洪起容，「地域經濟論」，博英社，pp. 244—248.

地指向產業이 각기 特化된 業種으로 나타났는데 이와같은 사실은 事業體數를 기준으로 立地商을 파악하였기 때문에 종업원이나 生產額 기준에 의한 것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업체당 종업원수 및 生產額規模가 각기 상이함으로써 실제 農촌공업의 業種別 구성비가 변화하게 되는데 農촌공업의 業種別 개발실태는 〈表5〉에서 알 수 있다.

業體數에 있어서 각기 음식료품(29.3%), 섬유의복(15.9%), 비금속광물(15.7%)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비해 종업원수에 있어서는 섬유의복(23.2%), 조립금속(23.1%), 음식료품(16.9%), 生產額에 있어서는 화학제품(39.0%), 음식료품(15.8%), 조립금속(15.2%) 등의 순으로 각기 나타남으로써 최근 重化學工業育成정책의 추진과 함께 거제, 창원, 여천, 구미 등 일부 거점지역에 정책적으로 입지한 섬유, 화학제품, 조립금속업 등 資本 및 勞動集約的 產業을 제외하고는 전통적으로 원료조달 면에서 비교유리성을 갖는 음식료품, 섬유의복, 비금속

광물 및 나무제품등이 農촌공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規模上의 특성

사업체의 規模(Size) 역시 기업의 성격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체의 규모는 종업원수 및 생산액이나 附加價值의 크기로 파악된다.

1983년의 도시 및 農촌공업의 業體當規模를 비교해 보면 도시공업의 경우 종업원수 59.0명, 생산액 1,516.9백만원, 附加價值가 536.6百만원인데 비해 農村工業은 종업원이 47.3명, 생산액이 1,634.4백만원, 附加價值가 519.8百만원으로 생산액을 제외하고는 종업원이나 부가가치액의 규모가 도시공업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도시공업이 農촌공업에 비해 勞動集約的이고 附加價值率이 높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는 農촌지역에 특화되어 입지하고 있는 업종의 성격과 규모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도시 및 農촌지역에 있어서 업체당 규모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表6〉과 같다. 즉 업체당 종업원수, 생산액 및 부가가치 규모에 있어서 도시 및 農촌지역 모두 제1차금속, 화학제품, 조립금속, 섬유의복 등 勞動集約的 수출산업과 重化學工業部門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農촌공업의 경우 도시공업에 비해 특히 음식료품, 나무제품 등의 업체당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체수에 있어서 이를 업종이 農촌공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農촌공업의 규모는 도시공업에 비해 다소 작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다만 업체당 생산액의 경우 도시공업에 農촌공업이 앞서는 것은 최근 구미, 포항,

表 5 農村工業의 業種別 實態, 1983

| | 業體數 | 從業員數 | 生産額 |
|------------|------------------------|-------------------------|------------------------------|
| 음식료품 | (社) 2,540 (29.3) | (名) 69,242 (16.9) | (百만원) 2,244,050 (15.8) |
| 섬유의복 | 1,378 (15.9) | 95,007 (23.2) | 1,462,471 (10.3) |
| 나무제품 | 659 (7.6) | 10,093 (2.5) | 104,618 (0.7) |
| 종이, 인쇄, 출판 | 388 (4.5) | 18,435 (4.5) | 660,150 (4.7) |
| 화학제품 | 931 (10.7) | 47,916 (11.7) | 5,532,548 (39.0) |
| 비금속광물 | 1,366 (15.7) | 47,161 (11.5) | 1,129,915 (8.0) |
| 제1차금속 | 183 (2.1) | 13,417 (3.3) | 704,348 (5.0) |
| 조립금속 | 1,029 (11.9) | 94,627 (23.1) | 2,159,833 (15.2) |
| 기타 | 201 (2.3) | 14,336 (3.5) | 180,655 (1.3) |
| 計 | 8,675 (100.0) | 410,234 (100.0) | 14,178,588 (100.0) |

資料：경제기획원, 「공업센서스조사」, 1984.

表 6 地域 別 業種別 業體當 規模比較, 1983

단위 : 名, 百萬원

| | 都 市 地 域 | | | 農 村 地 域 | | |
|----------|---------|---------|---------|---------|---------|---------|
| | 종업원수 | 생산액 | 부가 가치 | 종업원수 | 생산액 | 부가 가치 |
| 음식료품 | 61.6 | 3,074.6 | 1,179.4 | 27.3 | 883.5 | 408.2 |
| 석유, 의복 | 65.4 | 891.1 | 335.9 | 68.9 | 1,061.3 | 358.6 |
| 나무제품 | 28.8 | 553.4 | 173.3 | 15.3 | 158.8 | 64.2 |
| 종이제품, 인쇄 | 30.1 | 688.4 | 308.6 | 47.5 | 1,701.4 | 518.8 |
| 화학제품 | 79.9 | 3,296.7 | 938.2 | 51.5 | 5,942.6 | 1,201.5 |
| 비금속광물 | 36.5 | 961.3 | 340.5 | 34.5 | 827.2 | 387.8 |
| 제1차금속 | 93.6 | 5,850.2 | 1,743.0 | 73.3 | 3,848.9 | 948.7 |
| 조립금속기계 | 62.9 | 1,514.5 | 581.1 | 92.0 | 2,099.0 | 802.1 |
| 기타 | 47.6 | 496.2 | 226.4 | 71.3 | 898.8 | 393.1 |
| 計 | 59.0 | 1,516.9 | 536.6 | 47.3 | 1,634.4 | 519.8 |

울산, 창원, 여천, 거제 등지에 정책적으로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자본집약적인 대기업을 유치한 결과 이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인근 농촌 지역 下請業體 등의 생산액이 농촌공업에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 결과 종업원 및 자본금 규모별 사업체의 분포는 <表 7> 및 <表 8>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농촌지역의 경우 종업원 규모 5~9명의 소기업이 38.6%로 도시지역의 33.2%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資本金 規模 10億 이상의 大企業에 있어서는 도시지역이 2.9%인데 비해 농촌지역에서는 3.4%로 나타나 농촌공업이 종업원수에 있어서는 도시공업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본금 규모에서는 오히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表 8 資本金 規模別 製造業體의 分布

단위 : 社

| | 小企業 (10百만미만) | 中企業 (10~999) | 大企業 (1,000百만이상) | 計 |
|------|------------------|-----------------|--------------------|-------------------|
| 都市地域 | 25,199 (82.4) | 4,468 (14.7) | 901 (2.9) | 30,568 (100.0) |
| 大都市 | 18,683 (84.8) | 2,865 (13.0) | 476 (2.2) | 22,024 (100.0) |
| 기타市 | 6,516 (76.3) | 1,603 (18.8) | 425 (4.9) | 8,544 (100.0) |
| 農村地域 | 6,653 (76.7) | 1,727 (19.9) | 295 (3.4) | 8,675 (100.0) |
| 計 | 31,852 (81.2) | 6,195 (15.7) | 1,196 (3.1) | 39,243 (100.0) |

있다. 이는 도시지역이 労動集約的 產業에 특화한 반면 농촌지역에는 최근 資本集約의인 석유, 화학제품 등 대규모 공업이 상대적으로 급격히 성장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3. 經營上의 特性

農村工業의 또 다른 특징은 경영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농촌공업의 업종이나 규모상의 특징과 함께 이들이 立地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工業立地條件상의 특수성은 도시공업과 다른 농촌공업 고유의 경영상 특성을 형성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활용 가능한 2차 자료의 범위 내에서 회사형태, 고용상의 특징, 經營能率 등 을 도시공업과 비교 분석해 보았다.

表 7 從業員 規模別 製造業體의 分布

단위 : 社

| | 小企業 (5~9) | 中企業 (10~299) | 大企業 (300~) | 計 |
|------|------------------|------------------|----------------|-------------------|
| 都市地域 | 10,144 (33.2) | 19,580 (64.0) | 844 (2.8) | 30,568 (100.0) |
| 大都市 | 7,246 (32.9) | 14,150 (64.2) | 628 (2.9) | 22,024 (100.0) |
| 기타市 | 2,898 (33.9) | 5,307 (62.1) | 339 (4.0) | 8,544 (100.0) |
| 農村地域 | 3,349 (38.6) | 5,140 (59.3) | 186 (2.1) | 8,675 (100.0) |
| 計 | 13,493 (34.4) | 24,720 (62.9) | 1,030 (2.7) | 39,243 (100.0) |

表 9 會社形態別 製造業體의 分布, 1983

단위 : 社

| | 株式會社 | 其他法人 | 個人會社 | 計 |
|------|-----------------|--------------|------------------|-------------------|
| 都市地域 | 5,529 (18.1) | 258 (0.8) | 24,781 (81.1) | 30,568 (100.0) |
| 大都市 | 3,451 (15.7) | 163 (0.7) | 18,410 (83.6) | 22,024 (100.0) |
| 기타市 | 2,778 (24.3) | 95 (1.1) | 6,371 (74.6) | 8,544 (100.0) |
| 農村地域 | 2,082 (24.0) | 115 (1.3) | 6,478 (74.7) | 8,675 (100.0) |
| 計 | 7,611 (19.4) | 373 (1.0) | 32,159 (81.9) | 39,243 (100.0) |

먼저 會社形態別 농촌공업의 분포를 보면 〈表9〉와 같다. 즉 농촌공업의 경우 株式會社 및 기타 法人體가 25.3% (2,197社), 個人會社가 74.7% (6,478社)로 나타난데 비해 도시공업에서는 株式會社 등이 18.9%, 개인회사가 81.1%로 나타남으로써 오히려 농촌공업에서 근대적인 조직 형태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70년대의 地方工業開發 및 대도시 공업의 地方分散施策 등과 관련하여 최근에 移轉 및 창업한 농촌공업들이 많다는 사실과 함께 주식 회사 형태가 영세자본가들이 비교적 손쉽게事業用資本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농촌공업에 취업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職種別 구성비를 살펴보면 生產職 종업원이 78.5% (317,686명), 事務職 종업원이 19.6% (79,278명) 自營業者가 1.9% (7,752명)으로 도시공업의 생산직 80.1%, 사무직 18.0% 및 自營 1.6%의 구성에 비해 생산직종업원의 구성비가 적은 반면 사무직과 自營業者의 구성비가 높에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촌공업의 業體當從業員規模가 도시공업에 비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自營 및 事務職 종업원의 구성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이들 농촌공업 취업자의 性別 구성비를 살펴

表 10 地域 및 性別 從業員構成, 1983

단위 : 名

| | 男 子 | 女 子 | 計 |
|------|---------------------|-------------------|----------------------|
| 都市地域 | 1,045,891 (56.6) | 801,277 (43.4) | 1,847,168 (100.0) |
| 大都市 | 622,044 (53.8) | 533,192 (46.2) | 1,155,236 (100.0) |
| 기타市 | 423,847 (61.3) | 268,085 (38.7) | 691,932 (100.0) |
| 農村地域 | 257,027 (63.5) | 147,689 (36.5) | 404,716 (100.0) |
| 計 | 1,302,918 (57.9) | 948,966 (42.1) | 2,251,884 (100.0) |

보면 〈表10〉에서와 같이 63.5%가 남자종업원이고 나머지 36.5%가 여자종업원으로 나타나 여자종업원의 비중이 도시공업의 43.4%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농촌공업의 業種상 작업기술적인 면에서 여성노동력의 취업을 제약한다는 점과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농촌여성들의 工業部門 취업에 대한 意識構造의 차이에 의한 것 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농촌공업의 年間操業期間을 도시공업과 비교해 보면 도시공업이 연간 11.4개월을 조업하는데 비해 농촌공업은 연간 10.7개월만 조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勞動集約的인 업체일수록 조업기간이 길고, 소규모 원료지향적인 업종에서 짧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농촌공업의 操業期間이 짧은 것은 원료의 불안정한 조달, 농촌노동력 이용의 계절성 등 농촌공업 및 농촌공업을 둘러싸고 있는 불리한 경영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과 같은 농촌공업의 낮은 操業率과 함께 농촌지역의 불리한 工業立地條件은 결국 농촌공업의 經營能率 자체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농촌공업의 경영능률을 나타내는 指標들은 〈表 11〉과 같다. 이들 지표에 의하면 농촌공

表 11 農村工業의 經營指標 比較, 1983

| | 資本生産性 (附加價值／固定資產) | 勞動生産性 (附加價值／從業員) | 土地生産性 (附加價值／建坪) | 製品在庫率 (在庫額／生產額) | 附加價值率 (附加價值／生產額) |
|------|----------------------|---------------------|--------------------|--------------------|---------------------|
| 都市地域 | (천원) 1,024 | (천원) 9,095 | (천원) 491 | 1.43 | 35.4 |
| 大都市 | 1.285 | 7,195 | 511 | 1.90 | 36.7 |
| 기타市 | 0.853 | 12,280 | 473 | 1.00 | 34.2 |
| 農村地域 | 0.799 | 10,989 | 367 | 1.38 | 31.8 |
| 平均 | 0.965 | 9,449 | 458 | 1.42 | 34.5 |

업의 경영능률이 도시공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는 勞動生産性을 제외한 資本生産性과 土地生産성이 낮고 製品在庫率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업체당 생산액에 비해 附加價值率은 도시공업보다 낮은 수준인 31.8%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와 비교해서 살펴본 이상의 농촌공업의 성격은 단순히 場所의 차이에 따른 立地만이 아니라 業種과 規模 및 그 經營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서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분명한 것은 농촌공업개발이 공업입지로서 農村이라는 장소의 선택만이 아니라 농촌지역의 경제구조, 賦存資源등과 유기적인 연계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IV. 農村工業의 成長(1970~83) 分析

그동안의 대도시 및 일부 거점지역 중심의 輸出主導型 공업개발 과정에서 농촌공업은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이와 같은 물음에 앞서 농촌공업의 크기를 결정지우는 요인을 검토해 보면 크게 농촌지역의 사업체수 증가와 사업체 단위당 규모의 확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농촌지역의 사업체수는 기본적으로 농촌지역이라 부를 수 있는 郡單位 행정구역의 크기에 의

해 결정되는 데 분석대상 기간인 1970~83년 동안의 행정구역 변경을 보면 도시지역인 市의 경우(특별 및 직할시 포함) 1970년의 32개에서 1983년에는 50개로 18개 市가 증가하였다. 이들의 내역은 1973년 7월의 행정구역개편으로 安養, 城南, 富川市가 설치되었으며 1978년 2월에는 龜尾市, 1980년 4월에는 東海, 昌原, 堤川, 榮州市 그리고 1981년 7월에는 光明, 松炭, 東豆川, 太白, 井州, 南原, 錦城, 永川, 金海, 西歸浦市가 각각 설치되었다. 따라서 이전까지 농촌공업으로 파악되었던 이들 지역의 제조업체들은 행정구역이 市로 변경됨에 따라 도시공업으로 전환되어 결국 지역구분방식에 의한 농촌공업의 크기는 그 만큼 줄어들게 되었다. 本 연구에서는 매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행정구역 개편에 의한 농촌공업의 규모변동을 반영하였다.

먼저 이 기간중 우리 나라의 전체 공업부문 성장을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表 12>와 같다. 제조업체수에 있어서는 1970년 24,114社에서 1983년에는 39,243社로 연평균 3.82%씩 성장하였는데, 지역별로는 都市工業이 4.97%씩 성장한데 비해 農村工業은 겨우 0.78%의 증가에 그치고 있어서 전체 공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농촌공업의 구성비는 1970년의 32.5%에서 1983년에는 22.1%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농촌공업의 사업체수의 낮은 증가 및 구성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수와 생

表 12 地域別 工業部門成長, 1970~83

단위 : 千名, 10億원

| | 業體數 | | | 從業員數 | | | 生產額 | | |
|----------|------------------|-----------------|--------|-----------------|---------------|-------|------------------|------------------|--------|
| | 都市 | 農村 | 計 | 都市 | 農村 | 計 | 都市 | 農村 | 計 |
| 1970 | 16,275 (67.5) | 7,839 (32.5) | 24,114 | 695 (83.4) | 138 (16.6) | 833 | 7,362 (82.0) | 1,612 (18.0) | 8,974 |
| 1975 | 16,709 (73.3) | 6,078 (26.7) | 22,787 | 1,191 (83.9) | 229 (16.1) | 1,420 | 15,293 (83.1) | 3,108 (16.9) | 18,401 |
| 1980 | 21,990 (71.3) | 8,833 (28.7) | 30,823 | 1,595 (79.2) | 420 (20.8) | 2,015 | 27,795 (76.6) | 8,484 (23.4) | 36,279 |
| 1983 | 30,568 (77.9) | 8,675 (22.1) | 39,243 | 1,805 (81.5) | 410 (18.5) | 2,215 | 31,712 (73.9) | 11,226 (26.1) | 42,938 |
| 年平均增加(%) | | | | | | | | | |
| 70~75 | 0.53 | △4.96 | △1.13 | 11.37 | 10.66 | 11.26 | 15.74 | 14.03 | 15.44 |
| 75~80 | 5.65 | 7.76 | 6.23 | 6.02 | 12.90 | 7.25 | 12.69 | 22.24 | 14.54 |
| 80~83 | 11.60 | △0.60 | 8.38 | 4.21 | △0.80 | 3.20 | 4.49 | 9.78 | 5.78 |
| 70~83 | 4.97 | 0.78 | 3.82 | 7.62 | 8.74 | 7.81 | 11.89 | 16.10 | 12.80 |

* 都實物價指數로 환산한 80년 不變價格.

資料：經濟企劃院, 「鐵工業센서스」.

산액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는데 1970~83년 기간중 농촌공업부문의 종업원이 연평균 8.74%, 생산액이 16.10%씩 각기 증가한데 비해 같은 기간 도시공업은 각기 7.62% 및 11.89%씩 성장함으로써 전체공업부문중 농촌공업이 차지하는 종업원수는 1970년의 16.6%에서 1983년에는 18.5%로, 생산액은 18.0%에서 26.1%로 각기 확대되었다.

그동안의 행정구역 개편에 의한 농촌지역의 축소와 이에 따른 농촌지역 사업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농촌공업의 종업원 및 생산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사업체 자

체의 규모확대에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 業體當 종업원수 및 생산액의 규모확대는 〈表13〉에서 알 수 있다. 業體當 從業員數의 경우 도시공업이 1970년 42.7명에서 1983년에는 59.0명으로 연평균 2.52%씩 증가한데 비해 같은 기간 농촌공업에서는 17.6명에서 47.3명으로 7.90%씩 증가함으로써 1970년에는 도시공업 대비 41.2%에 불과하던 농촌공업의 업체당 종업원규모가 1983년에서 도시공업의 80.2%까지 성장하였다. 한편 업체당 생산액 및 종업원 1인당 생산액은 도시공업을 훨씬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업체당 생산액의 경우 1970~83년 기간중

表 13 地域別 業體當 從業員 및 生產額成長

단위 : 百만원

| | 業體當從業員數 | | | 業體當生產額 | | | 從業員當生產額 | | |
|----------|---------|-------|------|---------|---------|-------|---------|-------|-------|
| | 都市(A) | 農村(B) | B/A | 都市(A) | 農村(B) | B/A | 都市(A) | 農村(B) | B/A |
| 1970 | 42.7 | 17.6 | 41.2 | 452.4 | 205.6 | 45.4 | 10.6 | 11.7 | 110.4 |
| 1975 | 71.3 | 37.7 | 52.9 | 915.3 | 511.3 | 55.9 | 12.8 | 13.6 | 106.3 |
| 1980 | 72.5 | 47.5 | 65.5 | 1,264.0 | 960.4 | 76.0 | 17.4 | 20.2 | 116.1 |
| 1983 | 59.0 | 47.3 | 80.2 | 1,201.0 | 1,294.0 | 107.7 | 20.3 | 27.4 | 135.0 |
| 年平均成長(%) | | | | | | | | | |
| 70~75 | 10.80 | 16.46 | — | 15.13 | 19.99 | — | 3.84 | 3.06 | — |
| 75~80 | 0.33 | 4.73 | — | 6.67 | 13.44 | — | 6.33 | 8.23 | — |
| 80~83 | △6.64 | △0.14 | — | △0.02 | 10.45 | — | 5.27 | 10.70 | — |
| 70~83 | 2.52 | 7.90 | — | 7.80 | 15.20 | — | 5.13 | 6.76 | — |

表 14 農村工業의 從業員規模別 事業體數의 成長
단위 : 社

| | 小企業 (5~9) | 中企業 (10~299) | 大企業 (300명 이상) |
|-----------|--------------|-----------------|------------------|
| 1970 | 5,707(72.8) | 2,074(26.5) | 58(0.7) |
| 1975 | 3,215(52.9) | 2,717(44.7) | 146(2.4) |
| 1980 | 3,660(41.4) | 4,953(56.1) | 220(2.5) |
| 1983 | 3,349(38.6) | 5,140(59.3) | 186(2.1) |
| 年平均增減率(%) | | | |
| 70~75 | △10.84 | 5.55 | 20.27 |
| 75~80 | 2.63 | 12.76 | 8.55 |
| 80~83 | △2.92 | 1.24 | △0.05 |
| 70~83 | △4.02 | 7.23 | 9.38 |

도시공업이 7.80%씩 증가한데 비해 같은 기간 농촌공업은 15.20%씩 성장하여 1983년 현재 도시공업의 업체당 생산액 1,201.0百만원 보다 오히려 많은 1,294.0百만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종업원당 생산액은 도시공업이 5.13%씩 증가한데 비해 농촌공업은 6.76%씩 증가하여 1983년에는 종업원 1인당 연간 27.4百만원 규모를 생산하였는데 이는 도시공업의 1.35倍에 해당된다.

이상과 같은 農村工業의 성장을 企業規模別로 살펴보면 그동안의 성장이 주로 中大規模企業의 성장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 이 기간에 있어서 從業員規模別 農村工業의 성장실태를 보면 <表 14>와 같다. 즉 상시종업원 5~9명 규모의 小企業은 1970~83년 동안 연평균 4.02%씩 감소한데 비해 10명 이상의 中企業 및 300명 이상의 大企業은 연간 7.2~9.38%씩의 높은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전체 농촌공업 중 小企業이 차지하던 비중은 1970년의 72.8%에서 1983년에는 38.6%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中企業은 26.5%에서 59.3%로, 大企業은 0.7%에서 2.1%로 각기 증가하였다.

한편 농촌공업의 業種別 成長을 보면 <表 15>와 같이 1970~83년 기간중 음식료품, 종이제품 등은 연평균 2.09% 및 0.59%씩 감소하고 그 밖

表 15 農村工業의 業種別 事業體數의 成長, 1970~83
단위 : 社

| | 1970 | 1975 | 1983 | 年平均增 加 (%) (70~83) |
|----------|------------------|------------------|------------------|--------------------------|
| 음식료품 | 3,344 (42.7) | 2,268 (37.3) | 2,540 (29.3) | △2.09 |
| 섬유, 의복 | 1,138 (14.5) | 1,223 (20.1) | 1,378 (15.9) | 1.48 |
| 나무제품 | 619 (7.9) | 500 (8.2) | 659 (7.6) | 0.48 |
| 종이제품, 인쇄 | 419 (5.3) | 313 (5.1) | 388 (4.5) | △0.59 |
| 화학제품 | 430 (5.5) | 417 (6.9) | 931 (10.7) | 6.12 |
| 비금속광물 | 1,190 (15.2) | 818 (13.5) | 1,366 (15.7) | 1.07 |
| 제1차금속 | 37 (0.5) | 37 (0.6) | 183 (2.1) | 13.08 |
| 조립금속기계 | 624 (6.7) | 417 (6.9) | 1,029 (11.9) | 5.33 |
| 기타 | 138 (1.8) | 85 (1.4) | 201 (2.3) | 2.93 |
| 計 | 7,893 (100.0) | 6,078 (100.0) | 8,675 (100.0) | 0.73 |

에 나무제품과 비금속광물은 0.48% 및 1.07%씩의 낮은 성장을 보이는데 비해 제1차금속, 화학제품, 조립금속은 각기 13.08%, 6.12% 및 5.33%씩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1970년의 경우 음식료품을 중심으로 한 나무제품, 비금속광물 등 농촌원료지향적 3업종이 64.8%를 차지하고 이른바 수출산업 및 중화학공업에 속하는 화학제품, 제1차금속 및 조립금속업의 3업종은 12.7%에 지나지 않았으나 1983년에는 이를 重化學工業 등의 업종이 24.7%로 확대된 반면 농촌원료지향적인 음식료품 등은 52.6%로 감소하고 있다.

종업원수와 생산액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1970~83년 기간중 농촌공업의 종업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음식료품이 26.6%에서 16.9%로 비금속광물이 14.5%에서 11.5%로 각기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같은 기간 화학제품은 7.3%에서 11.7%로, 조립금속은 8.6%에서 23.1%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생산액에 있어서도 음식료품이 21.6

%에서 15.8%로, 비금속광물이 10.1%에서 8.0%로 감소한 반면 화학제품은 5.1%에서 40.5%로, 조립금속은 4.8%에서 15.2%로 각기 그 규모가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촌공업의 성장과 함께 이루어지는 業種別 구조변화는 그동안의 농촌공업의 개발이 주로 전자 제품등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제조업과 석유, 화학제품 및 제1차 금속 등에 의해 主導的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들 업종은 그 성격상 資本集約의이고 규모가 큰 업체들이기 때문에 도시공업에 비해 비교적 빠른 성장, 특히 생산액 규모의 높은 성장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성장분석을 통해 농촌공업은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사업체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종업원이나 생산액 규모는 도시공업을 능가하는 성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제1차금속, 석유화학, 조립금속 등 자본집약적 中大規模企業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농촌공업의 업종별, 규모별 구성비도 현저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농촌공업개발계획의 수립은 이와 같은 構造變化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실제 농촌공업의 성장과 농촌경제의 활성화가 적결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V. 맷는 말

70년대의 대도시 위주의 공업개발은 도시지역의 과도한 工業集積과 함께 농촌공업부문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킴으로써 전체 제조업체수에서 농촌지역에 立地하는 농촌공업의 비중은 1970년의 32.5%에서 1984년에는 25.8%로 감소하였

다. 이와 같은 농촌공업의 총량규모는 기본적으로 農村地域의 범위 설정에 따라 각기 그 크기를 달리하고 있는데 인구 10만이하의 市 및 郡을 농촌지역에 포함할 경우 28.4%, 邑을 제외한 面만을 농촌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17.7%에 불과하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을 行政區域상 郡單位 地域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를 지역의 제조업체들은 市地域에 입지한 업체들과는 달리 음식료품, 나무제품,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농촌지역에서 비교적 손쉽게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業種에 특화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하고 操業期間이 짧으며 製品在庫率이 높은 등의 이유로 인해 附加價值率이 낮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들 농촌공업의 성장에 관한 분석결과는 그동안의 행정구역 개편에 의한 사업체수의 상대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1970~83년 기간의 업체당 종업원 및 생산액 규모는 도시공업의 연 평균 2.52% 및 7.8%를 월씬 능가하는 7.9% 및 15.2%를 기록함으로써, 70년대 중반에 차수된 공업의 地方分散과 地方工業育成施策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기간에 있어서 농촌공업의 성장은 業種別로는 제1차금속, 석유화학 및 조립금속 등에 의해, 규모별로는 中大規模企業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는 사실은 정부의 輸出產業 및 重化學工業育成施策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은 다만 농촌공업의 總量規模 변화를 개략적으로 파악해 본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앞으로 농촌공업의 성장은 물론 도시공업과 비교한 농촌공업의 성격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실증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농촌공업 개발이 그 본래의 취지인 農業構造改善과 농촌경제의 활성화 및 국토의 均衡開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촌공업개발이 단순히 농촌지역의 工業立地選擇만이 아니라 “離土不離鄉, 進廠不進城”⁸의 방법을 통해 농촌경제와 有機的인 연계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參 考 文 獻

- 金光錫, 「韓國工業化폐단과 그 要因」, 韓國開發研究院, 1980.
- 金文植外, 「日帝의 經濟侵奪史」, 民衆書館, 1971.
- 金裁元, “韓國製造業의 產業別生產構造와 中小企業의 地位” 「韓國開發研究」, 4(1), 1982.
- 朴東燮, 「中小企業論」, 博英社, 1972.
- 朴鍾熙, 「工業立地가 地域發展에 미치는 經濟的效果 分析」, 서울大 碩士論文, 1983.
- 柳昌聲, 「工業立地論」, 豐雪出版社, 1977.
- 李敬儀, 「韓國經濟와 中小企業」, 加芝, 1982.
- 林鍾哲, “解放後 韓國의 工業發展,” 「經濟論集」 16(2), 1975.
- 崔洋夫 外, “農村工業의 概念과 農村工業開發의 意味,” 「農村經濟」 3(1), 1980.
- , 李桐弼, “農村經濟의 非農業活動과 農村工業開發,” 「農業政策研究」 10(1), 1983.
- , 李桐弼, 「農工地區開發의 方向과 政策課題」,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4.
- 黃晉益, “製造業에서 企業構造가 分布에 미치는 影響,” 「地理學」, 28, 1983.
- 黃載璣, “우리나라 工業의 地域別 構成,” 「地理學」, 8, 1973.
- , “우리나라 製造業의 部門別 地域構造와 立地動向,” 「地理學」, 9, 1974.
- 郭基柱, “工業立地의 動向,” 「地理學」, 6, 1971.
- , “韓國工業立地의 展開過程,” 「地理學」, 12. 14. 1975년 및 1976.
- Sant, M. E. C., *Industrial Move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Pergamon Press, 1975.

⁸ 조선일보(1986. 11. 4)에 소개된 中共의 農村工業開發方式 으로 “토지를 떠나되 농촌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공장에 나가되 도시로 나가지 않는” 것을 의미함.